

제278회 임시회
2009. 3. 27(금)

심 사 보 고 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안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09. 3. 27.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특별위원회

1. 심사 경과

제 출 자 :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9년 3월 27일

○ 회부일자 : 2009년 3월 27일

상정일자 :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9. 3. 27 : 제2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장 한 창 동)

제안 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세계 최고의 생명산업 메카로 조성하여 국가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이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가장 최적의 장소가 선정되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태동시와 출범 직후 우리도 유치를 천명한

바 있고, 우리도의 제반여건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적지임에도, 정부의 의지나 국가의 미래발전 전략과는 달리 정치적 논리에 동화되어, 집적에서 분산으로의 방향 선회 움직임이 있어,

- 반드시 우리 도가 집적형 단지를 유치하도록 의회차원의 굳은 결의를 표명하려는 것이며,
- 본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원, 중앙관련부처 장관, 관련기관장 등에 송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우리 충청북도는 그동안 국가발전의 소외와 홀대는 물론, 근래에 수도권 규제완화, 국가발전 전략의 각종 권역 지정 배제로 성장의 꿈을 펴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허탈감 속에서도 온 도민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우리도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눈앞에 조성될 단지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입지선정평가방안의 용역 중간보고서가 정부의 의지나 국가의 미래발전 전략과는 달리, 정치적 논리에 편승하여 집적조성에서 분산배치로의 방향선회 움직임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함.
- 이에 우리 도 국회의원 일동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우리도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한 분산배치를 극력 반대하며 선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함.

3. 검토보고 :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이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안

세계 최고의 생명산업 메카로 조성할 첨단의료복합 단지는 국가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난 수년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역별로 개정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법안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법안 고수는 집적조성만이 미래지향적 국가 발전과 최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기저로 현 정부의 태동과 출범 직후에도 집적조성과 우리도 유치를 천명한 바 있고,

우리도에서는 연구활동의 접근성 등 제반여건이 충족되어,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해 단지가 지정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100만여 도민이 유치염원 서명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그동안 국가발전의 소외와 홀대는 물론, 근래에 수도권 규제 완화, 국가발전 전략의 각종 권역 지정 배제로, 성장의 꿈을 꺾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탈감 속에서도 온 도민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우리도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눈앞에 조성될 단지의 찬연한 모습이 선연한 이때에,

최근 입지선정평가방안의 용역 중간 보고서가 정부의 의지나 국가의 미래발전 전략과는 달리 정치적 논리에 편승하여,

집적조성에서 분산배치로의 방향 선회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도 의회의원 일동은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155만 도민의 염원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우리도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정치적 논리에 의한 분산배치를 극력 반대
하고 저지한다!
하나, 도민들의 유치역량을 결집시키고 당위성
홍보활동에 주력한다!
하나, 단지 지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선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2009. 3. 27.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